

忠南 大德郡 杞城面の 支石墓

金 武 龍

今年二月二十三日 大田市郊外인 大德郡 鎮領面所在 支石墓를 調査 하려고 佳水院에 가는 中 佳水院橋 西方約 百米 地點에 蓋石 二個와 足石 같은 것이 四個 논두렁을 사이에 두고 東과 西에 散在함을 確認하였다. 東쪽 것은 蓋石의 크기가 最長徑 三·六米 最短徑 二·五米 厚 九〇cm로 서 後面은 地面과 거의 接해 있고 前面만 若干 떠있는 狀態이며 方向은 大略 南向을 가리키고 있다. 蓋石은 大略 長方形狀이며 支石墓高는 不明 이다. 足石은 現在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으나 散在해 있는 塊石들이 아마 이 足石이라고 생각된다. 型式은 거의 北方式임이 틀림없다고 본다. 西쪽 것은 蓋石의 最長 二·八米 最短 一·九米 幅 一·八米 乃至 二·二米 厚 七〇cm 로서 大略 不定橢圓形狀이다. 後面은 若干 土中에 埋沒되었고 方向은 大略 東南向을 取하고 있다. 亦是 支石墓高와



支石

足石狀態는 알 수가 없는데 石質은 片磨岩類이다. 이 支石墓에 關한 傳說이나 信仰은 없는 것 같다. 이 支石墓의 下部構造를 알 수 없음이 유감 이다. 이 支石墓의 立地條件은 錦江上流인 佳水院川畔의 畚中에 있으므로 이 亦是 支石墓分布上 「錦江流域群」(註)에 包含시켜야 될 것이라고 본다.

〔附記〕杞城面 支石墓外에도 鎮領面에 「支石酒幕」(崔南善朝鮮의 故蹟) 六十頁參照)이란 곳이 있었다고 하며 또 最近 洪城 葛山中學校長 蔡奎仲 氏에 依하여 鎮領面 細洞里에서 三基, 大井里 田中에서 一基, 計 四基

의 支石墓가 發見되었다고 傳聞하였다.

〔註〕金元龍 「論山郡 楊村面の 支石墓群」參照

考古美術一

◎ 再發見된 文武王陵碑 斷石

慶州 博物館長 洪思俊

지난 五月 十六日 軍事革命日에 지금 말하려는 新羅 第三〇代 文武王陵碑一部 가 發見된 經緯를 말하자면 當日 正午頃에 年老한 慶州在住 案内人과 俗地名 遺物 遺蹟의 所在 傳說等을 묻고 들던차에 分館職員 李鍾聲君의 말에 前日 借家 하였던(日政時 日本人 住宅) 庭園內에는 이름모를 잘라진 碑石이 있다 하여 가 본 데서 確認이 된 것이다. (發見地 慶州市 東部里 一班 一六八番) 碑形態는 元碑石의 約 三分之一인 下端部이고 石質은 赤褐色이며 前後碑面 左右端을 若干 모를 짝여 만들었다. 碑面에 나타난 現況은 다음과 같다.

- 一、碑尺數 幅 三·二尺 厚 八寸
- 一、碑文行數 前後面各 二十八行
- 一、井間尺數 縱 三·二cm 橫 三·一cm
- 一、字徑 二·〇cm 橫 一·七cm

이 斷碑가 처음 發見된 것이 아니고 李朝 正宗年代에 發見된 記錄이 耳溪(洪良 浩)文集 十六에 題新羅文武王陵碑로 「往在 鷄林時. 訪文武王陵. 無片石可驗. 後三 十六年. 土人耕田忽得古碑於野中」으로 알 수 있으며 그 斷碑拓本이 淸國 金石學 者인 劉燕庭에게 건너가서 海東金石苑에 실려진 것으로 推測된다. 海東金石苑에 실린 文武王陵碑文은 第一石에서 第四石까지의 碑文이 있는데 이번 發見斷碑는 第二石과 第三石에 該當된다. 그러면 第二石과 第三石이 碑前後面으로 一個斷碑가 된데서 海東金石苑의 第一石과 第四石도 應當 碑前後面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보 면 今西博士著 新羅史研究(四九六頁)에 보이는 海東金石苑 第一—第四石의 連續 하여 본 五〇行 一行 四六字는 原形碑文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詳細한 內容은 「美術資料」에 記載하였기 로 이 곳에는 發見經緯와 形態만을 적 어둔다.